

4주차

조선 왕의 즉위식과 그 의미

소진형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조선 왕의 즉위식

- 도입
- 태조의 즉위식
- 왕위는 혈통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

02. 왕위의 계승 방법 1: 수선(受禪)

- 수선(受禪)
- 맏아들이 꼭 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
- 서양 중세의 즉위식과 동양의 즉위식의 차이

03. 왕위의 계승 방법 2: 사위(嗣位)

- 흥례로서의 즉위식
- 사위를 통해 즉위한 왕들

04. 왕위의 계승 방법 3: 반정(反正)

- 중종반정
- 인조반정

05. 왕의 즉위 의식

- 수선의 즉위식
- 사위의 즉위식
- 반정의 즉위식

4차시

왕위의 계승 방법 3: 반정(反正)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- 왕위 계승방법 중 반정의 방식과 의미를 배운다.

학습내용

- 중종반정
- 인조반정

중종반정

반정(反正)

- ‘난세를 바로잡아 바른대로 돌아간다’는 의미
- 《춘추공양전》에 수록된 뜻

조선의 반정(反正)

- 중종반정(1506)
- 인조반정(1623)

중종반정

- 반정으로 인해서 중종이라는 왕이 통치하게 되었다는 의미
- 1506년 9월 18일 일어난 정변으로 당시 왕이었던 연산군이 폐위되고 그의 이복동생 진성대군 이역이 왕이 된 사건

연산군은 어떤 왕인가

- 조선의 10대 왕으로 조선의 가장 유명한 폭군
-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관료들과 학자들을 죽임
- 학자 관료들과 왕이 함께 경전과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경연을 폐지
- 학자 관료를 길러내는 대학인 성균관을 연회장소로 사용

연산군은 어떤 왕인가

- 사냥을 하기 위해 도성 밖 30리 안의 민가를 철거
 - 언문 사용 금지
 - 기녀를 과도하게 지원해서 국고 탕진
- 유교적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폭군의 면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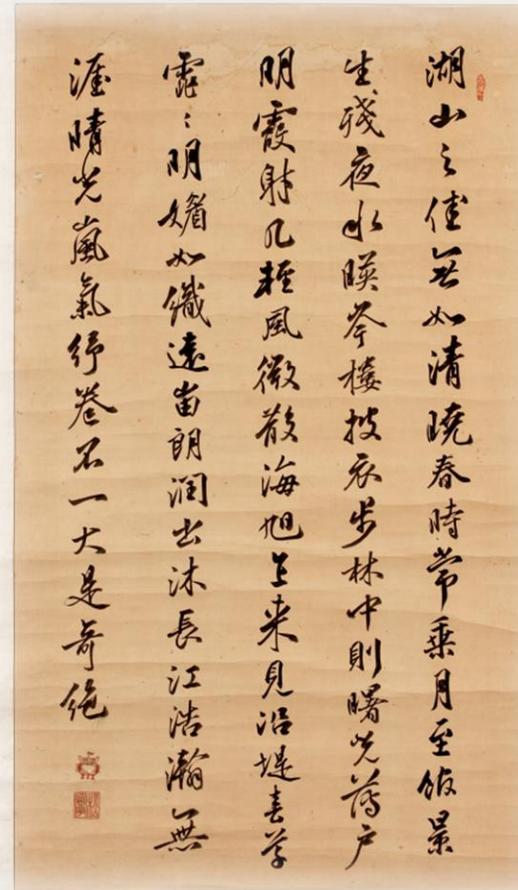
연산군의 폐위와 중종 즉위

- 중종은 반정을 통해 연산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름
 - 연산군과 대비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음
- 민생을 위해 애쓰고, 연산군이 한 모든 향락적인 일들을 폐지
- 사냥도 거의 하지 않음

인조반정

인조반정

- 16대 왕 인조가 당시 폭군이라 불렸던 광해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사건



인조의 글씨

광해군에 대한 평가

- 긍정적: ‘현실주의적 외교 정책’
- 부정적: 명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를

중요하게 여기지 않음

인목왕후 교서의 광해군 폐위 이유

- 광해군의 왕위계승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음
- 광해군은 인목왕후의 부모와 친척은 물론 자신의 형제들과 서모를 죽이고 인목왕후를 유폐함

인목왕후 교서의 광해군 폐위 이유

- 전쟁의 재발 가능성이 높음
- 전쟁의 후유증으로 국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민가 수천 채를 철거하고 궁궐을 짓는 등 토목공사를 10년 동안 함

인목왕후 교서의 광해군 폐위 이유

- 아첨하는 관료들만 남기고 충신들을 제거함
심각하게 세금을 수취해서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짐
- 명의 은혜를 버리고 오랑캐, 즉 청과 손을 잡음
→ 유교질서를 파괴하고 폭정을 한 왕이기 때문에
폐위되어야 함

반정으로 즉위한 인조의 고민

- 백성으로부터 민심을 얻는 것
- 그러나 후금과의 무력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
→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 전쟁 대비를 해야 하나,
실행하기가 어려움

반정으로 즉위한 왕의 정당성

- 반정의 대상이었던 폭군들과 다른 정치를 해야만 했음
- 인조의 경우에는 광해군을 폐위한 이유가 인조의 왕권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

반정으로 즉위한 왕의 정당성

- 왕위계승의 정당성이 충분하지 못하면 권력행사에 제한
-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왕들은 그 행동에 많은 제약

마무리

- 반정으로 즉위한 왕: 중종, 인조

마무리

- 왕위 계승의 세 가지 방법
(수선, 사위, 반정)

SOURCES

[출처01] 국립중앙박물관

<http://www.emuseum.go.kr/detail;jsessionid=85C93654A6FE3671A244473982A99A12?relicId=PS0100100100100510900000>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이봉규·정다영

교안
정다영

영상
김록현